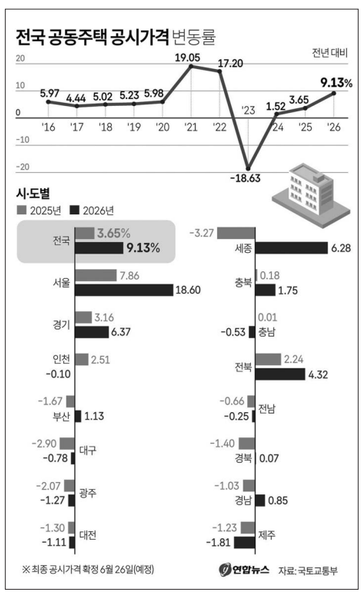
광주 주택공시가격 1.27%↓…전국 9.13% 상승

보유세 부담에 의견 접수 5년만에 최다
하향요구 봇물…전남 -0.24%→-0.25%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가운데 광주·전남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1.27%, 0.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9.13% 상승했지만 광주는 1.27% 하락했다.

광주의 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은 제주(-1.8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고,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서울(18.6%),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등이 상승하고, 광주와 제주를 포함한 대전(-1.11%), 대구(-0.78%), 충남(-0.53%), 전남(-0.25%), 인천(-0.10%) 등이 하락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1만4561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지난달 발표된 열람안에서 전국은 9.16% 상승할 것으로 산정됐지만 0.3%p 떨어졌다.

광주가 -1.25%, 전남이 -0.24%에서 소폭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으로 변동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대전은 지난번보다 0.01%p 상승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4132건보다 3배 이상 많아 지난 2021년(4만9601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였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1만166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으로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상반기 전략회의…"'3고' 리스크 관리 강화"

신용·경제·교육지원사업 부문별 추진사항 등 점검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건전결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건전결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 말 기준 시점결산과 가결산 분석을 공유하고, 신용·경제·교육지원사업 등 부문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농협경제연구소의 '2026년 농축협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및 위험 진단', 조합 구조개선부의 '구조개선 및 부실 예방업무 이해' 특강이 이어지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3고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경영위험 단계별 관리조치 이행 △사업부문별 리스크 관리 강화 △수익 연동형 비용 집행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연도말 목표 손익 달성을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본부는 앞으로 매월 및 분기별로 농·축협 경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농·축협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연도말 건전결산 달성과 조합원 중심의 경영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건전결산에 힘쓰고 있는 상임이사와 전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중동 사태 등으로 농가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전남본부도 144개 농·축협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남도장터, 가정의 달 할인 최대 25만원 혜택

전복·한우·굴비 등 최대 30% 할인
정부·지자체 사업 연계 판로 지원

전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수축산물 할인 행사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 생산자 판로 확대에 나선다.

남도장터는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남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회원은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전은 전남도 수산물 온라인 소비 촉진 행사,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대한민국 수산대전, 소상공인 동행축제, 여수·함평 할인 기획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주요 품목은 가정의 달 선물 수요가 높은 전복, 민물장어, 한우, 굴비를 비롯해 새우, 홍어, 양파 등 민생물가와 밀접한 실속형 농수축산물로 구성됐다.

남도장터는 최근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등 국비 사업을 유치하며 도내 농어가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 기반을 넓혀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은 전남지역 소상공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남도장터 내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상시 할인과 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영세 생산자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김민경 남도장터 본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전남의 청정 먹거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 위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도내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고객에게는 신뢰받는 품질과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유통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콘진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K-콘텐츠 상생·협력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콘진원은 133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특히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득점을 기록해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필요의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콘진원은 이번 평가에서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성장 기반 확대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특히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콘진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혁신 생태계 구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과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간 협력 체계 구축,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를 통한 콘텐츠 지식재산(IP) 중심의 이종 산업 협력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반 상생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콘진원은 해외 각지에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중소·영세 콘텐츠 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상담, 협력망 구축, 사업화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글로벌 K-콘텐츠의 파급력을 활용해 식품, 소비재,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수요를 넓히며 수출 활로 개척에도 성과를 냈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 성과가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국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콘진원은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로도 인정받았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업생산기반 연구 실용 모색 농어촌공사, 소통협의체 열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6년 농업생산기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소통협의체'를 열고, 농업생산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농업생산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수요자, 관리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연구(학계·농어촌연구원)와 수요(공사 사업담당 부서), 관리(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각 부문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과제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현장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먼저 공사 농어촌연구원 도종원 차장이 '농공분야 기술수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공분야 14개 기술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과 격차를 소개했다. 이어 주요 연구과제 책임자들이 과제별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승헌 농어촌연구원장 주재로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성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서기관은 "연구자와 수요자, 관리자 간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연구와 현장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 연구소통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연구자, 수요자, 관리자 간 소통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angnam.co.kr

오비맥주, 한정판 '오비라거' 뉴트로 시리즈 출시

초창기 OB맥주 디자인 재해석…내일부터 편의점 판매

오비맥주가 과거 'OB맥주'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비라거' 뉴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오비맥주는 뉴트로(New+Retro) 트렌드를 반영해 OB맥주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소비자층에게는 향수를 전하는 한편, 과거의 문화를 새로운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젊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브랜드의 비주얼과 상징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재구성했다.

OB맥주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모티브로, 조화와 복을 기원하는 오방색을 비비드한 색감으로 풀어내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성했다. 500㎖ 캔으로 5월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한정 수량 판매된다. 하반기에는 패키지 디자인에 변화를 준 추가 에디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비라거는 과거 감성을 그대로 담은 330㎖ 캔 레트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7월에는 신규 디자인 시리즈를 대형마트에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오비라거'는 100% 보리 맥아만 사용한 올 몰트 라거 맥주로, 깊고 구수한 보리 향과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6%다.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부사장은 "과거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시리즈를 기획했다"며 "올해는 뉴트로와 레트로 두 가지 콘셉트의 한정판 시리즈를 통해 세대를 잇는 공감과 브랜드 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농협 무안군지부는 최근 무안지역 애플망고 재배농가들과 함께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더느림㈜ 김원삼 농가를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농협 무안군지부, 아열대 작목 재배농가 견학

무안·완도 등 선진농장 현장 학습

농협 무안군지부는 최근 무안지역 애플망고 재배농가들과 함께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더느림㈜ 김원삼 농가를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기후변화로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아열대 작목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안군에서도 애플망고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농가의 재배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참여 농가들은 더느림 김원삼 농가의 아열대 작목 재배시설을 둘러보며 생육관리, 온·습도 조절, 병해충 대응 등 핵심 재배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아울러 유통과 판매 전략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평강 농협 무안군지부장은 "아열대 작목은 농업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견학이 무안지역 농가들이 경쟁력 있는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